

☼ 극본을 이야기로, 이야기를 극본으로 바꾸어 쓰는 방법을 알아보시다.

1. 극본의 특징을 생각하며 ‘볍씨 한 톨’을 읽어 봅시다.

볍씨 한 톨

때: 옛날

곳: 시골 마을의 기와집

나오는 사람들: 시아버지, 며느리 셋

불이 켜지면 기와집 안방이 보이고, 시아버지가 아랫목에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.

시아버지: (혼자말로) 젊었을 때 농사를 땀나게 지어서 이제 이만큼 먹고 살 만한데, 나도 이렇게 늙어 버렸으니 살림을 누구에게 물려주나? 세 며느리 중에서 누가 살림을 가장 잘 하는지 알아야 할 텐데-----. 옳지! 그러면 되겠군.

시아버지가 볍씨 항아리를 가지고 나오며 큰 소리로 며느리 셋을 부르자, 이어 맏며느리가 나온다.

시아버지: (볍씨 한 톨을 며느리에게 주며) 애, 첫째야,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 두어라.

맏며느리: (화를 내며 혼자말로) 아유, 나는 금은보화라도 되는 줄 알았네. 겨우 볍씨 한 톨을 주시면서 뭐 귀한 것이라고? 이까짓 볍씨 한 톨을 어디에 쓴담? (마당에 획 던지며) 에이, 쥐나 물어 가라.

시아버지: (둘째 며느리에게도 볍씨 한 톨을 주며) 애, 둘째야. 이것 받아라. 귀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 한다.

둘째 며느리: (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볍씨를 간다.) 아이고, 아버님이 장난도 심하셔. 이까짓 볍씨 한 톨, 먹어 버려야지.

시아버지: 애, 막내야, 네게도 이것을 줄 테니 잘 간수하여라.

막내며느리: (고개를 가웃거리며) 아버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에는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본데, 헛되이 쓰지 말아야지. 그런데 어디에 쓴담? (무릎을 탁 치며) 참새를 잡으면 좋겠군. 운이 좋으면 참새를 병아리와도 바꿀 수 있을 거야.

2. 극본과 이야기의 차이를 생각하며 ‘볍씨 한 톨’의 의미를 읽어 봅시다.

볍씨 한 톨의 의미

옛날에 농사를 잘 지어서 살림을 제법 이룬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 노인에게는 며느리가 세 명 있었습니다. 노인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살림을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며느리에게 살림을 물려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. 노인은 골똥히 생각하다가 며느리 중에서 누가 살림을 가장 잘 하는지 실험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그래서 세 며느리를 한 명씩 불렀습니다.

먼저, 맏며느리를 불러 볍씨 한 톨을 주면서 말하였습니다.

“자,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 두어라.”

맏며느리는 금은보화라도 되나 보다 하고 공손하게 받았는데, 가지고 나와서 보니 겨우 볍씨 한 톨이었습니다.

“에이, 볍씨 한 톨이 뭐가 귀해?”

이러고는 볍씨를 내던져 버렸습니다.

노인은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를 불러서,

“자, 이것 받아라.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 된다.”

하고 또 볍씨 한 톨을 주었습니다. 둘째 며느리도 볍씨 한 톨을 보고 실망하여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.

“아이고, 아버님이 장난도 심하셔.”

둘째 며느리는 볍씨를 까서 먹어 버렸습니다.

이제는 막내며느리 차례가 되었습니다. 막내며느리도 똑같이 볍씨 한 톨을 받았습니. 막내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.

‘이것을 주실 때에는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본데, 헛되이 쓰지 말아야지.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쓴답?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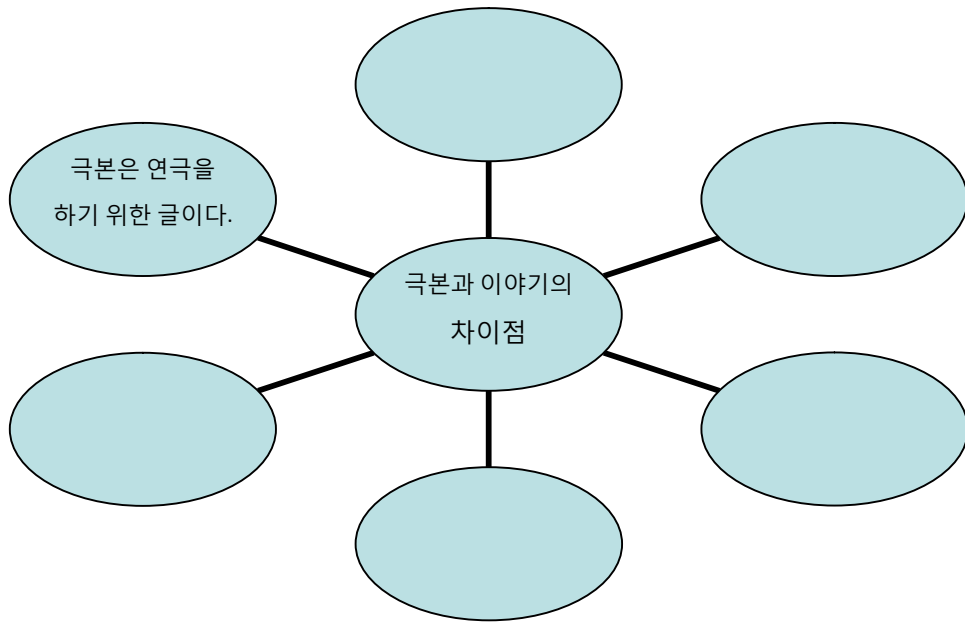
곰곰이 생각하던 막내며느리는 볍씨 한 톨을 이용하여 참새를 잡기로 하였습니다.

‘운이 좋으면 참새를 병아리와도 바꿀 수 있을 거야.’

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.

3. '별씨 한 톨'과 '별씨 한 톨의 의미'를 읽고, 인물의 성격, 사건, 배경을 말하여 봅시다.

4. '별씨 한 톨'과 '별씨 한 톨의 의미'를 비교하며 읽고, 극본과 이야기의 차이점을 찾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.



5. 극본을 이야기로, 이야기를 극본으로 바꾸어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

극본을 이야기로 바꿀 때

- 해설을 이야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?
- 인물의 대사를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?
- 극본을 이야기로 바꿀 때에 더 고려할 점은 무엇입니까?

이야기를 극본으로 바꿀 때

- 인물의 모습과 배경 등을 극본에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?
-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극본에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?
- 사건의 흐름을 무엇을 통하여 나타냅니까?
- 이야기를 극본으로 바꿀 때에 더 고려할 점은 무엇입니까?

6. ‘별씨 한 톨’이나 ‘별씨 한 톨의 의미’에 이어질 내용을 극본이나 이야기로 꾸며 써 봅시다.

☼ 극본을 이야기로, 이야기를 극본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.

1. 모둠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극본을 찾아봅시다.
 - 찾은 작품의 제목:
2.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, 사건,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봅시다.
 - 인물의 성격:
 - 사건:
 - 배경:
3. 2를 바탕으로 하여 극본은 이야기로, 이야기는 극본으로 바꾸어 쓰려고 합니다.
그림을 참고하여 어떻게 바꾸어 쓸지 정리하여 봅시다.
지수: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을 극본으로 꾸며 써 보자.
애나: 배경인 인당수에 대한 설명을 해설로 써 보자.
민우: 뱃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지문으로 써 보자.
제니: 심청니가 인당수에 빠지는 사건은 심청이와 뱃사람의 대사로 써 보자.
4. 2와 3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극본은 이야기로, 이야기는 극본으로 재미있게 바꾸어 써 봅시다.
5. 모둠별로 바꾸어 쓴 극본이나 이야기를 읽어 보고, 어색한 부분을 고쳐 써 봅시다.
6. 바꾸어 쓴 극본을 연극으로 발표하거나, 바꾸어 쓴 이야기를 다른 모둠 친구에게 들려줍니다.